

“꿈사다리 TV로 진학정보 확인을”

전북교육청, 입시제도 변화 등 진학 정보 동영상 콘텐츠 제공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롯된 휴업연장에 따른 진학 정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꿈사다리 TV’를 제작·운영한다고 밝혔다.

‘꿈사다리 TV’는 도내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입시제도의 변화와 전형별 대입정보와 같은 핵심 진학 정보를 동영상 강의 형태로 제공하는 진학 정보 지원 콘텐츠다.

이는 기존의 일회적이고 획일적인 입시설명회의 한계를 보완하고, 초

의 온라인 개학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꼭 필요한 진학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이다. 강사로는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현직 고등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 연수지원팀이 참여하며, 대입전형별로 시의성 있는 진학관련 주제를 선정해 시기별로 제작한다.

‘꿈사다리 TV’는 학생들이 집중력을 갖고 시청할 수 있도록 1차시 분량 15분 내외의 짧은 동영상으로 핵심 내용

을 안내하며, 4월에는 10차시 분량을 우선적으로 탑재하고 이후 매주 1차시의 내용을 제공한다.

동영상의 주된 내용으로는 고3 수험생을 위한 ‘2021학년도 대입전형계획’과 ‘전형별 특징 및 지원전략’을 중점적으로 제작하고, 5월부터는 대입 전형 시기에 맞게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방법, 자기소개서 및 면접 준비 방안, 2021 정시 수능 전형, 고1,2학생을 위한 대입 준비 방안 등을 차례로 제작해서 제공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진학 정보 공백을 전북 꿈사다리 TV가 어느 정도 메워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일회성 영상 제작에 그치지 않고 추후에 다양한 교육 수요자를 고려한 형태와 내용으로 제작해 단위 학교의 진학지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작된 동영상은 진로진학센터 홈페이지(http://jirro.jbe.go.kr)와 꿈사다리 진로진학상담밴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학교에는 파일 형태로 제공해 입시설명회 및 진로진학수업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백흥기 전북대 명예교수 3000만원 발전기금 기탁

“전자공학부 후학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북대학교 전자공학부에서 평생을 학생들과 함께하다 올해 정년퇴임한 백흥기 명예교수(공대 전자공학부)가 장학 사업에 써달라며 3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백 명예교수가 기금을 기탁한 것은 평생 몸담았던 대학과 학과를 위해 무언가 하고 싶다는 평소 생각을 실천한 것이다.



전북대학교 전자공학부에서 평생을 학생들과 함께하다 올해 정년퇴임한 백흥기 명예교수(공대 전자공학부)가 장학 사업에 써달라며 3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1981년부터 39년 동안 전북대 전자공학부에 재직하던 백 명예교수는 학과 실험실습 운영에 기여했고, 또 공학교육 인증 추진위원장을 맡아 공대의 공학인증제 정착에도 공헌을 했다.

특히 백 교수는 재직 중 20여 년 동안 매년 여름방학에 학생들과 지리산 종주 산행을 함께 해왔고, 2017년에는 전북대 캠퍼스 면면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모바일 표지를 이용한 보물찾기 캠퍼스 지오캐싱을 자문하기도 했다.

올해 정년을 맞은 백 교수는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을 통해 제자에 대한 사랑을 이어나가고자 했다.

백 교수는 “40년 가까이 대학에서 많은 학생들과 꿈같은 시간을 보냈다. 스승으로서 후학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원 총장은 22일 백흥기 명예교수를 총장실로 초청해 발전기금 기탁식을 갖고 감사패 전달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원광대 김선남 교수,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 위촉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행정인문학부 김선남(58·사진) 교수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김선남 교수는 제2기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조정하고, 국가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을 조율하는 업무에 참여한다.

정책기획위원회는 2017년 12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기구로 100대 국정과제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 전문가 조직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정책 현안과제 연구와 국가 발전 전략 및 정책 방향



을 기획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언론학자인 김선남 교수는 국민주권 분과에 배정돼 표현의 자유와 함께 언론 독립 및 개혁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원광대 사회과학대학장과 행정대학원장을 역임한 김선남 교수는 2014년부터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익산=정양원 기자

우석대, ‘밀반찬 나눔’ 봉사

우석대학교 사회봉사실과 원주군자원봉사센터가 지역 독거 어르신을 위한 밀반찬 나눔 봉사에 나섰다.

우석대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사회봉사단 10여명은 22일 전북 원주군자원봉사센터에서 ‘참! 좋은 사랑의 밥차’를 활용해 원주군 관내 독거 어르신을 위한 밀반찬을 정성껏 만들어 나눔을 실천했다.

남찬현 총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 잘 드시고 건강하게 이겨내셨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북대 창업보육센터, 경영평가 ‘최우수’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전북대학교 창업보육센터(센터장 권대규·사진)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2020년 창업보육센터 경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 평가를 받았다.

경영평가는 매년 전국 237개 창업보육센터를 대상으로 기관의 전문성, 운영인프라, 사업계획의 효과성, 유관기관연계성, 운영실적관리 등 정량 및 정성적인 세부평가지표를 활용해 이뤄진다.

전북대 창업보육센터는 전북 지역 16개 창업보육센터 중 가장 뛰어난 실적을 보이며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특히 창업보육센터는 지난해 5개 기관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보육역량강화사업에서 베트남-태국 해외시장개척단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82건의 바이어매칭을 통해 12건위 MOU 체결 및 수출계약을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2020년 경영평가에서는 창업보육



활성화를 위한 전년도 사업계획 운영에 따른 달성도와 창업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입주기업과 내·외부 자

원 연계 활용 프로그램 운영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권대규 창업보육센터장은 “우리 대학이 창업보육센터 뿐만 아니라 창업지원단 등 다양한 창업 지원분야에서도 꾸준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올해는 지역주력산업 및 3대 신산업분야 육성,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 창업보육센터는 지난해 평가에서도 최우수등급을 받은 바 있으며, 전라북도 거점대학으로 최고의 창업보육 요람으로서의 임지를 다지고 있다.

/장은성 기자

당북초, 온라인 입학식 ‘눈길’

선생님 소개 영상 · 교장 선생님 응원의 메시지 등

군산 당북초등학교(교장 권영숙)는 온라인 개학에 맞춰 이색적인 온라인 입학식 및 시업식을 실시했다.

입학식 및 시업식은 학교에서 만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선생님들의 소개 영상과 교장 선생님의 응원의 메시지가 담긴 4분 32초의 영상을 보는 것으로 16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됐다.



당북초등학교 유튜브 입학식 영상.

입학식 및 시업식은 다양한 온라인 학습방을 통해 영상으로 교원 소개 및 교장선생님의 인사말로 시작했다.

이후 학급별로 주간학습 안내에 따라 온라인 학습에서 영상을 보며 진행됐다. 구글 행아웃 미트를 통한 쌍방향 만남으로 교사와 학생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뤄졌다. 또한, 수업 주제에 따라 멘티미터, 카훗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생각을 공유하고 퀴즈를 풀며 배운 내용을 확인하기도 했다.

당북초는 원격교육 관리위원회를 두고, 원격교육 계획을 수립해 학년별 학습내용, 출석방법, 온라인 학습 방법 등을 안내했다. e학습터, EBS 온라인 클래스를 통한 강의 수강과 위두랑 및 디지털교과서, 클래스팅, 밴드를 활용한 학습, 과제 관리, 평가 등으로 온라인학습이 진행된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8일부터 온라인학습 운영을 위한

연수를 수시로 실시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기 부족으로 온라인 학습에 참여하기 힘든 다자녀, 장비 미비유 가정에는 스마트 기기를 대여해 40여 가구에서 현재 이용하고 있다.

5학년 학부모는 “동생이 있어서 신경 써주지 못하는데, 본인 스스로 열심히 하는 모습이 대견해 보여요.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2학년 나00 학생은 “처음에는 온라인 학습이 어렵게 느껴졌는데,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해보니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권영숙 교장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선생님들의 실천 의지가 학생들에게는 또 다른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